

선/교의 동역자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사33:2)오늘도 이말씀을 암송하며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베푸실 은혜와 구원을 의지하며 동역자님의 삶과 가정위에 이말씀으로 축복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때로는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때론 모든 것이 암당하게 막혀 어찌해야 할 지를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친히 역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부족한 저희를 향한 동역자님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어 씁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절한 중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어떤 순간에도 오랫동안 사랑과 기도로 동역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기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라오까이교*회의 공인화 추진과정에서 오는 아픔!”

10년 전부터 북베트남 산악지대에 있는 20여 미전도 미전도 종족선교에 뛰어 들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과 연단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종족선교’에 재헌신을 하고 난 후 저희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작은 고통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인지라 어떻게 사역을 시작해야 할지 너무나도 막막했었고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하여 건축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의성 무너진 곳을 붙잡고 기도하는 한사람이 되고자 광야에 그저 길을 내는 심정으로 오랫동안 기도로 나아갔더니 아버지의 때에 외국인 최초로 라오까이 땅에 올라와서 살게 되었고 올라와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의 초창기인 이곳에 바른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면서 몸부림을 치곤 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라이쳐우 하니족을 방문할 때는 라오까이에서 이틀 길을 달리다가 차가 낭떨어지로 떨어져 두 번이나 죽을 뻔한 사고도 있었지만,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교회가 부흥하여 모임장소가 협소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건축을 하였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 북부지역에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여 건축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환경을 통해 이런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이 완공되어 지난 선교편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노이 북부총회에 기증을 하러 가면서 총회에서 라오까이지역은 북베트남 복음화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역인지라 총회에서 신학교를 하기 위해 속히 공인을 추진하고 싶어했고 북부총회에 속한 예배 처소 허가증을 내주었습니다. 라오까이 지방정부와 인민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인허가증이 있어야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기에 이런 서류와 절차를 총회에서 직접 밟기로 했고 라오까이 교회에서 밟으면 30년후에나 허가증이 나오는데 총회에서 하면 훨씬 빨리 나온다고 해서 라오까이 성도들과 함께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총회에서 서류를 올리자 라오까이 경찰10명이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총회에서 인준한 예배허가증이 있기에 예배모임을 핍박하지는 못하고 밖에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조사해 가고 모든 학생들의 학교와 집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하고 이로 인해 40여명의 성도들이 반절로 줄었습니다. 저희도 당분간은 주일예배에 참석을 자제하고 저희 사역자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역자님!

라오까이교회가 개척되어 건축하여 공인허가 절차를 밟는 일이 비록 베트남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요 가장 예민한 국경지대인 라오까이에서 이뤄지고 있기에 더 어렵기도 하지만 동역자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라오까이 교회가 공인이 이뤄지고 북부지역에서 사역하는 일꾼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신학교도 시작하는 그 날

이 속히 올것입니다..

2. 라마스쿨 무기한 방학

소수종족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된 사마스쿨이 시작과 더불어 보안(?)적인 상황에 부딪쳐 한 달 만에 임시 휴교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여 현재까지 잘 진행되었고 학생들도 말씀, 찬양과 기도와 공동체훈련을 통해 많이 달라진 모습 속에 저희가 은혜를 받곤 했었습니다. 또한 올 여름에는 학생들과 모든 교수진이 더불어 미전도 종족선교에 대한 라마스쿨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학생과 교수와의 긴밀한 관계를 이를 영성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파현에서 허락하여 시작된 스쿨이 이젠 라오까이성 차원에서 학생들의 책을 압수하고 모두 집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또한 라이쩌우 디엔비엔푸, 하장, 타이빙의 각자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 지역 경찰들이 일일이 찾아가 라마스쿨에서 공부하지 말라고 각서를 쓰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베이스 식구들과 교수진들과 기도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붙잡으사 미전도 종족 선교사 훈련학교인 라마스쿨이 속히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간절히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하였던 리엔히우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협력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중보해 주십시오.

3. 사랑하는 딸 샤론이가 경험한 기적!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시107:8)

첫 번째 선교지인 필리핀에서 태어나 베트남에서 자라다가 라오까이 개척을 위해 에녹이와 샤론이를 한국으로 보낼 때 11살 반이던 샤론이는 “아빠 엄마와 함께 베트남에서 살고 싶다고” 공항에서 통곡하면서 베트남을 떠났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가서도 참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특히 다섯 살 때부터 디자인너에 대한 꿈을 키워오던 샤론이는 대학진학을 앞에 놓고 많은 좌절과 고통 속에 괴로워했습니다.

4년동안 풀장학금을 받고 미국유학을 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었는데 자기가 원하던 파슨스패션디자인학교에 합격을 했어도 돈이 없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베트남에 와서 프랑스어를 준비한 뒤 몇 년 뒤 프랑스로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샤론이는 어릴 때 부모님을 하나님께 빼앗기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과 2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왔고 한국에 가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과정은 밤마다 울었다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나쁜짓 안하고 착하게 살고 공부 열심히 하면서 기도 많이 하면 분명히 4년 장학금으로 패션을 공부하러 미국에 갈 것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합격해 놓고도 못들어가게 하는 하나님도 잔인하고, 부모님도 밉고, 모든 것을 힘들어 죽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그러는 딸을 위해 라오까이 베이스 예배 때 선생님들과 같이 샤론이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호주에서 온 국제 전화였는데 샤론이를 사랑해 주시던 어떤 집사님께서 샤론이 1년 학비를 대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파슨스를 안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도 이 돈은 샤론이 돈이니 프랑스로 유학가도 샤론이 것이라고..... 그 날이 등록 삼일 전이었는데 샤론이 또한 어떻게 그 큰 돈을 받고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하면서 통곡을 하였습니다.

결국 등록 마지막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몇 년동안 꿈꿔오던 파슨스대학에서 패션을 공부하고는 싶어서 너무나도 괴롭다고! 정말 그돈으로 공부해서 자기가 성공해서 은혜를 갚을 수 있겠느냐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결국은 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주시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샤론이는 더 작은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며 등록 마감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올 8월에 다섯 살 때부터 꿈꿔오던 디자인공부를 하러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한국을 방문하여 샤론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을 하였는데 학교 총감님부터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인사를 드렸는데 모든 분마다 샤론이 파슨스에 공부하러 가게 된 것에 대한 축하 인사를 받았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분을 만났느냐고....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베푸신 집사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샤론이는 지금 우리 কমিশনে서 하는 SMS(여름선교학교)에 참석하여 3주간 선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샤론이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면서 받았던 많은 외로움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새겨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딸로 잘 성장하고 주님의 지혜로 잘 배우고 1년 만 이 아니라 2,3,4학년 계속 공부하여 졸업 후 받았던 많은 사랑을 더크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라오까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중보요청.

이 사업은 베트남 코이카에서 추진하는 행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오까이 베이스 식구들은 비자를 글로벌케어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안정되게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글로벌케어가 베트남에서 안정되게 사업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2014년 말경에 베트남 코이카에 의해서 선택되면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7년까지 라오까이 베이스에 속한 모든 지체들(현재 13명)이 안정되게 비자를 보장받게 됩니다. 라오까이 지방정부에서 저희가 제출한 사업에 대해 속히 최종 허가를 내 주고 코이카에서 사업을 채택해 주시길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5. 저희들의 기도제목입니다. 중보해 주십시오.

1. 라오까이교회의 예배공인이 빨리 이루어져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도록. 또한 내부 페인트칠과 비품 구입이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 라마스쿨의 정상화를 위해 리엔히우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지방정부에 수속을 밟아 하루 빨리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수고하는 강목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3. 글로벌케어를 축복하시고 2014년에 제출한 라오까이 농가소득사업이 라오까이 지방정부에서 속히 승인해 주고 코이카에서 이 사업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시도록.
4. 라오까이 베이스 식구들(정/김 가족, 이/전 가족, 임마누엘, 조/김 가족, 안식년 중인 이/김 가족, 마리아)이 모두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뜨거운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5. 사랑하는 아들 에녹이의 군생활을 축복하시고, 딸 샤론이가 오는 8월에 유학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4년간 필요한 모든 학비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동역자님의 삶에 넘쳐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역자님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나단, 그레이스, 에녹, 샤론 드립니다.

P.S. 집을 이사하였습니다 (주소: 113 Quy Hoa, Kim Tan, Lao Cai, Vietnam)